

사회

경제 파탄·실업·가족해체 ... 외톨이 빈곤층 급속 확산

무정한 사회 '고독死' 늘고있다

한참 뒤 발견 ... 사인규명 어렵고 장례도 못치러

독거세대 복지·안전망 사실상 전무 ... 대책 시급

#1. 지난 9일 낮 12시45분께 광주 시 북구 오치동 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김모(40)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이불을 덮고 반듯하게 누워있었다.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으며, 방안에는 파리가 가득했다. 경찰은 "사망한 지 10여일은 돼 보인다. 주민들이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신고해왔다"고 말했다. 1년 전부터 홀로 세들어 살았던 김씨는 일정한 직업도 없...

부분은 직업이 없고, 지병이 있어도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외톨이 빈곤층'이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일정 수준에 다다랐지만 경제 파탄과 실업 및 가족해체 등에 따른 독거 세대에 대한 복지·안전망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여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정작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도 매달 수급비를 지원받는 것이 없는 실정에서 생활할 때 돌봐줄 사람이 없고, 응급상황에도 타인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복지시스템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실제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를 중심으로 '노인 돌보기', '도시락 배달', '안부전화', '방문상담', '사례 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정책이 중점 시행되고 있다.

고사하고, 가족을 찾지 못해 일부는 장례절차도 없이 사회복지 공무원들에 의해 화장되는 현실이다. 복지 선진국인 덴마크는 고독사를 막기 위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등 민간 차원의 독자적인 안전망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다. 조선대학교 강인호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홀로 사는 노인과 같이 모든 독거 세대를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는 없다"면서 "실업으로 인한 독거인은 실업 급여를 담당할 노동청에서 관리하고, 그 외에 독거인도 성별 또는 나이에 따라 지역 민간단체에서 관리하는 선진 복지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자전거 안전하게 타세요 10일 광주시 북구 동림동 상동교 친수공원 내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에서 교육을 마친 주부들이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며 안전하고 올바르게 자전거 타는 법을 익히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7억 꿀깍' 부도덕한 선생님들

광주·전남 832명 시간외근무 등 속여 ... 징계 안 받아

광주·전남지역 교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 등으로 각종 수당 7억6000여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단 한명도 없었고 모두 주의·경고 조치에 그쳤다. 1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직원 보수 및 수당 부당 수령 적발 사항을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지역 교직원은 모두 832명으로 부당수령 액수는 7억6000만원에 달했다. 광주는 250명이 1억4600만원을, 전남은 582명이 6억1300만원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지역 교직원의 부당 수령액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세번째로 많았다. 이들은 방학이나 병가, 출산휴가 기간에 근무를 했다고 초과 근무확인 대상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퇴근 시간이후나 휴일에 근무했다고 보고하는 수법으로 시간외 수당을 받아 챙겼다.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도 수당을 받았고, 부모와 같이 생활하지 않았음에도 가족수당을 수령했다. 대구와 부산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징계했으나,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서 징계가 이뤄진 사례는 없었다. 이상민 의원은 "일부 교직원들의 부작질한 태도와 만성적인 도덕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엄격한 처벌 기준을 세우고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음란 물든 '웹하드'

광주경찰, 아동 음란물 유포·이용자 54명 적발

인터넷 웹하드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대량 유포한 이용자와 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일본 음란 애니메이션을 대량 유포한 웹하드 이용자 48명과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웹하드 업체 대표 6명 등 54명을 적발하고 이 중 13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이 유포한 음란물의 일부는 나주 7세 여아 성폭행범인 고종석도 내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항과 입건된 이모(28)씨 등 10명은 지난 2009년부터 웹하드에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일본 음란 애니메이션을 유포했으며 공유 대가로 편당 40~80원씩 받았다. 또 웹하드 업체 대표 최모(35)씨 등 3명은 이런 음란물에 대해 필터링

과정을 생략하는 등 사실상 유통을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일본 음란 애니메이션은 비정상적인 남녀관계를 설정, 충격적인 장면을 담고 있었다. 웹하드 업체는 이용자가 음란물 등을 내려받을 때 포인트(사이버머니)를 지급해 한 뒤 운영자와 공유자가 7대3부터 9대1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승인 사이버수사대장은 "고종석이 웹하드로 음란물을 내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에 착안해 해당 업체와 공유자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성관념을 왜곡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부추기는 만큼 250여 개로 추산되는 웹하드 업체를 전수 조사해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임동환기자 exian@kwangju.co.kr

니원침 (8665) 김장두



나주 성폭행 피해 어린이 퇴원

전남대병원 "건강 호전·심리적 안정 되찾아"

전남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나주 성폭행 피해 어린이 A(7)양이 10일 퇴원했다. 전남대병원은 이날 "최근 A양의 건강상태가 호전되고 심리적으로도 많은 안정을 되찾아 입원한 지 40여 일 만에 퇴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A양은 치료 중 증상으로 잠시 음식 조절을 했을 뿐 소조롭게 치료를 받았다. 특히 의료진이 우려했던 감염 등 재수술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다. 앞으로 A양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통원치료를 받고 심리치료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또 정상적인 치료가 계속되면 내년 초 인공관문 복원 수술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치료를 담당했던 주재균 교수는 "A양이 입원할 당시 보였던 심리적인 불안 증세도 많이 해소되고 치료 결과도 매우 좋은 상태에서 퇴원하게 돼 다행"이라며 "주변의 많은 관심과 지원도 심리적인 안정에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A양의 치료비는 익명을 요구한 서울 강남의 모 병원이 전액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주월동 70대 노인 살해 남부경찰, 용의자 검거

광주남부경찰은 10일 "70대 노인 사망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A(50)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새벽 5시24분 광주시 남구 주월동 한 골재상 인근 무허가 주택 안에서 B(73)씨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여중생이 목욕탕서 일몰 촬영해 전송

○목욕탕에서 호기심이 일어 30대 여성의 나체를 촬영해 사진을 해당 여성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한 영동환(?) 여중생이 경찰서행. ○1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13)양이 지난 29일 오후 4시에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목욕탕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B(여·31)씨의 가슴 등을 촬영해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는 것. ○A양은 이날 목욕탕에서 처음 만난 B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했으며, 경찰에서 "호기심 때문에 해본 행동"이라고 진술.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 도심 멧돼지 출몰 ... 경찰 실탄 쏘 사살

북구 동림동 1시간 소동

광주 도심에 멧돼지가 출몰, 소동을 벌이다 경찰이 쏘 실탄에 사살됐다. 10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께 광주 북구 동림동 한 지역에 멧돼지 한 마리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40cm 크기의 3년생 수놈으로 추정되는 이 멧돼지는 동림동 지역의 눈을 휘젓고 다니다

한 공장부지 울타리 내로 뛰어 들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는 울타리의 문을 닫은 뒤 마취총으로 낚여 멧돼지를 포획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결국 1시간여 뒤인 오후 5시40분께 실탄을 쏘 사살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살용 등의 일부 파손은 있었지만 다행히 주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Lotte Supermarket (롯데제이티비) featuring various products, prices, and promotional offers. Includes sections for '무안출발' (Departure from Mu-an), '장가계' (Jangga-gye), and '롯데카드' (Lotte Card) benefits.

○광주점 : 롯데백화점 광주점, 롯데마트 첨단, 롯데마트 상무, 롯데마트 월드컵, 롯데마트 수완, 북구점, 가이점, 무등점, 문화전당점, 서광점, 매월점, 광안점, 농성점 ○전남점 : 롯데마트 여수, 롯데마트 여천, 순천점, 목포점, 광양점